06 2026 vol.626

만남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교회표어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

5대 본질

예배 · 선교 · 교육 · 성도의 교제 · 봉사

6월 목회력

05 금 ·구역모임의 날
06 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07 주일 ·찬양예배 성찬
14 주일 ·제직회, 새가족환영회
17 수 ~ **21** 주일 ·북한선교대회주간
19 금 ·심방준비회
21 주일 ·북한선교주일
26 금 ·금요권찰모임 상반기 종강
28 주일 ·교육부 여름사역 비전예배, 사회봉사주일
29 월 ~ **7/4** 토 ·하반기맞이 특별새벽기도회

CONTENTS

20

이달의 말씀

02 고요를 깨뜨리실 때 _ 김운성

특집 북한선교

05 영락교회의 북한 교회 세우기 _ 이철신
08 북한선교의 새로운 물결 _ 김의혁
11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나라 _ 김형찬
14 2026 북한선교대회 소개 _ 조원형
17 영화 〈신의악단〉 감동 스토리 _ 이진우 임서연 이지민

특별기고

20 세계 전쟁의 와중에서 생각하는 호국보훈의 달 _ 홍성표

만남 그리고 사람들

22 아버지의 한국전쟁, 탈북자의 하나님 _ 김영미
24 샤울레이 십자가 언덕에서 _ 김응기
26 사랑에 빚진 지극히 작은 자의 소명 _ 이선민
28 멈춘 줄 알았던 구역, 다시 흐르는 은혜 _ 송봉혜

2026. 06
vol. 626
만남

30

50

다음세대 / 청년광장

30 복음의 기쁨으로 피어난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 _ **공예은**
32 비워낸 자리, 하나님으로 채워진 은혜 _ **최명철**
33 내려놓으신 사랑, 변화된 나의 삶 _ **한대남**

땅끝까지 이르러

34 농어촌선교 현장에서 피어난 은혜 _ **임종환**
36 연천 열쇠부대 군전도를 다녀와서 _ **박수연**
38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평신도 선교사의 길 _ **강효식**

영락 글로벌

40 가장 따뜻한 사랑으로 품으신 하나님 _ **반즐라크치**

영락의 울타리

42 평범함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실하심 _ **권현준**
44 벽을 넘어, 찬양으로 하나 되다 _ **박예솔**
46 함께하는 자원봉사의 기쁨과 은혜 _ **김종범**

50 다음세대와 함께한 2026 영락 가족운동회 _ **이경일**
52 영락시어터 6월 상영 영화 _ **문화선교**

교회소식

53 교육주일 특별예배 외
60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 _ **이은혜**
61 새아기·새가정

고요를 깨뜨리실 때

김운성 담임목사

무너진 고국 예루살렘… 느헤미야의 고요한 삶이 무너지고 고난이 예견된 역사적 사명에 헌신을 다하다 우리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뜻 따라 편안함을 깨고 가치 있는 삶으로 승화시키길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겪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느헤미야 1:3~5)

마땅한 놀이가 없던 초등학교 시절에 여학생들은 고무줄놀이를 즐겼습니다. 검정 고무줄을 양쪽에서 길게 잡고는 노래를 부르며 팔짝팔짝 뛰어넘던 여자아이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장난이 심한 녀석들은 예리한 칼로 고무줄을 끊고 도망치곤 했고, 분을 참을 수 없는 여자아이들은 엉엉 울곤 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마치 심술궂은 아이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뒤흔들어 엉망을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본문도 그러한 예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주전 465~424년 재위) 시대에 왕의 술을 맡은 관원으로 수산 궁에서 잘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상은 주전 589년에 남 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의 후손인 그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 수산 궁에서 권력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술을 맡은 관원이란 요즘 식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관쯤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이 고요하고 안락한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고요한 삶을 뒤흔드셨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느헤미야의 친척 하나니를 비롯한 몇 사람이 왔는데, 그들은 오랫동

안 방치된 예루살렘의 참혹한 형편을 말해 주었고, 느헤미야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의 안락한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슬퍼하고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게다가 그 기도는 회개 기도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 것이 자신과 자기 가문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의 형편과 느헤미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거리도 수천 리 떨어져 있었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백 년도 더 된 일로서 그때 느헤미야가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루살렘에 대해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도 될 입장이었지만, 오히려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편안히 살고 있는 이의 삶을 흔드실까요? 그것은 새로운 삶으로 불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는 수산 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남은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 생애가 얼마나 고단하고 위험하고 힘든 희생적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생애는 고난을 통하여 가치 있는 삶으로 승화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느헤미야가 수산 궁의 안락한 삶을 고집했다면, 그의 생애는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 것이며, 우리는 그를 기억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함으로써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흔드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는 편안히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요를 깨뜨리시고, 한국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무릎 꿇고 부르짖게 하십니다.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북한은 남북한이 한민족임을 부인하고, 통일을 포기하고, 남과 북이 서로 다른 두 국가라고 주장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휴전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장벽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국내의 정치적 불안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가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성경의 원리에 도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수십 가지 악법들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안한 삶을 깨뜨리십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안락한 삶이 깨어지고, 고단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떠맡지 않아도 될 일에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 봉사, 애국적 헌신, 민족을 위한 수고는 모두 이런 측면이 강합니다. 편안히 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국 운동에 나섭니다. 지사의 길을 걷습니다. 작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 학부모기도회, 거룩한방파제기도회, 철야기도회를 통해 부르짖고, 퀴어축제에 맞서 국민대회를 열고, 올바른 후보가 지방선거에서 선택되도록 기도하고, 바른 한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수산 궁을 떠나듯이, 우리도 편안한 삶을 조금씩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느헤미야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우리도 작은 애국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안남

기억의 6월, 복음통일의 소망

6월, 우리는 나라를 지킨 희생 앞에 고개를 숙이고,
아직 끝나지 않은 분단의 아픔을 바라봅니다.
세계 곳곳의 전쟁은 평화가 결코 당연하지 않음을 일깨우고,
오늘의 자유가 선열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서 있음을 말해 줍니다.
북녘 동포와 자유인을 품고 기도하며,
영락에 맡겨진 북한 교회 세우기와 복음통일의 사명을 다시 붙듭니다.
북한선교대회와 자유인예배, 영화 〈신의악단〉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복음이 닫힌 땅에도 길을 내고,
눈물의 역사를 소망의 역사로 바꾸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침내 하나 되는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락교회의 북한 교회 세우기

민족복음화에서 복음통일로

영락교회는 교회를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민족복음화를 사역의 목표로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 오고 있다. 민족복음화란 민족의 정신이 복음 위에 세워져야 나라가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사역하는 것이다. 지금은 민족복음화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복음통일사역을 한다. 남북 동포의 정신이 복음 위에 세워져야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산다는 확신을 하는 것이 복음통일사역이다. 그리고 복음통일의 구체적인 방법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는 지하에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다. 해방 후부터 계속 신앙을 지켜온 연세가 많은 분은 숫자가 적어지고 있다. 그런데 중국에 가서 신앙을 받은 후, 북한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며 전도하는 성도가 많이 늘어났다. 또한 사명감을 품은 외국 국적의 성도가 북한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늘어나고 있다. 건물은 없지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무형의 교회가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다.

이철신 원로목사

핍박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남한 교회는 기도하고 연대하는 사역에 힘써야 한다.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나태하지 않고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하며,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과 연대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한에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실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문이 열리면 즉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먼저 '북한 교회 세우기'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더 나아가 북한 교회 세우기에 헌신할 사역자를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재정과 구호 물품을 준비해야 한다.

왜 신의주와 평안북도인가

하나님께서 북한에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실 때, 우리 영락교회는 북한의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워야 할까? 영락교회가 집중할 북한 지역은 신의주와 평안북도 지역이다. 우리 성도들이 북한 여러 지역에 있는 자기 고향의 교회 재건 기금을 헌금한 것이 이미 우리 교회 재정에 들어와 있다. 우리 교회는 북한 여러 곳에 이 교회들을 재건해야 한다. 그중에도 교회적으로 연고가 있

는 지역은 신의주 지역이다. 한경직 목사님이 해방 전에 사역하시던 교회는 신의주 북쪽 도심에 있는 신의주 제이교회**(사진)**이다. 그리고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교회에서 물러난 후, 남신의주 보린원에서 어린이와 노인을 돌보며 사역하셨다. 또한 신의주가 평안북도 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지역과 연관된 사역들이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연고를 이어받아서, 우리 영락교회는 신의주와 평안북도 지역에 사역을 지속해 왔다. 한경직 목사님의 '사랑의 쌀 나누기' 사업의 정신을 이어, 계속해서 밀가루와 빵 등 식량과 결핵약 등 의약품을 지원해 왔다. 특히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신의주 소재 평안북도 소아병원을 현대화하고 의약품을 지원했다. 병원 건물 보수부터 크고 작은 각종 의료기기와 의약품 지원에 이르기까지, 현대적인 병원으로 세웠다. 그리고 여러 구호 기관을 통해서 신의주와 평안북도의 어린이와 환자들을 위해서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이 지역의 관리들과 주민들은 영락교회의 사랑의 사역을 잘 알고 있고, 한경직 목사님이 신의주 주민들을 잊지 않고 있다고 회상하는 주민이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 이렇게 영락교회는 신의주와 평안북도 지역을 집중적으로 사역해왔다. 그러므로 북한에 복음의 문이 열릴 때, 이 지역에 교회 세우기를 집중해야 할 것이다.

신의주는 중국으로 가는 역사적인 관문 도시이다. 지금도 중국 제품을 평양권역 평성시장까지 공급하는, 북한에서 가장 활발한 무역 상업 도시이다. 또한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경공업이 발달한 곳으로서 북한에서 시장화가 가장 발달된 도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수용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신의주 서쪽에는 중국에서 새로 건설한 교량이 있어서, 도로까지 연결되어 개통되면 남신의주가 크게 발전할 것이다. 남한의 도시개발 학자는, 신의주 도시개발 클로스터 모델을 제시한다. 인구 50만 규모가 되어야 지역 순환 경제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의주와 의주, 피현, 용천을 포함해서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임동우, 『국토』 2018년 9월호, 24쪽) 그리고 중국 단동과 연계하고, 평양, 강계와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철도, 용암포 항구 확장, 국제공항 건설 등을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제안한다. 통일 후 신의주와 평안북도의 지역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제안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교회 세우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복음의 문이 열릴 때의 교회 세우기 구상

복음의 문이 열리면, 영락교회는 북신의주 도심 지역

에 있는 신의주제이교회 지역에 선교센터를 세워야 한다. 선교센터는 신의주와 평안북도 전체 선교사역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종합 센터이다. 센터 안에 먼저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지도자 훈련원을 세워서 교회의 전도자, 양육자, 교사, 찬양 인도자 등을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센터에는 구호소를 세워서 대규모 구제사역을 통해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소아병원을 확장하고 학교를 세워야 한다. 이 선교센터에서 신의주와 평안북도의 교회를 세우도록 지원하고,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구호소, 복지 시설, 문화 시설 등 다양한 사역을 진행해 갈 수 있다.

남신의주 보린원 지역에는 선교센터의 지도를 받는 커뮤니티 센터를 세운다. 이 커뮤니티 센터 역시 교회와 구호소, 복지시설, 학교를 세운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 교회들을 세워나간다. 이렇게 의주, 피현, 용천 등 주변 지역에도 커뮤니티 센터를 세우고, 그 센터의 계획을 지원하여 지역 교회들을 세워나감으로써 평안북도 전체를 복음화해 나갈 수 있다. 2008년에 UNDP에서 발표한 북한 인구 통계에 의하면, 평안북도는 2,728,662명, 신의주는 359,341명이다. 그리고 해방 전 평안북도에 570개의 교회, 신의주에 9개의 교회가 있었다. 이러한 통계를 따라서, 인구 2,000명당 100명이 출석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신의주에는 9개의 교회를 재건하고 171개의 교회를 세워서 180개의 교회 세우기를 목표로 삼을 수 있다. 평안북도 전체에는 570개의 교회를 재건하고 795개의 교회를 세워서 1,365개의 교회 세우기를 목표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우리 영락교회가 앞장서서 북한 교회 세우기에 헌신하는 교회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신의주 보린원(1941년)

영락교회에 맡겨진 사명

우리 영락교회는 교회 설립 초기부터 민족복음화 운동에 헌신해서, 우리나라의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에 기여하고,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데 힘을 기울였다. 이제는 우리 민족의 복음통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해야 할 사명이 우리 영락교회에 주어져 있다. 북한 전 지역을 위해 헌신하되, 우리 영락교회가 특별히 집중해야 할 지역은 신의주와 평안북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락교회를 사용하셔서, 복음통일을 이루실 줄 믿는다. 그리고 복음으로 통일된 우리나라는 평화롭고 자유롭고 선진화된 나라,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만남

북한선교의 새로운 물결

김의혁 교수
숭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

고려인, 조선족, 재일교포, 탈북민, 영미권 한인 그리고 한국인까지 한민족 디아스포라와 한국 청년들이 2박 3일 동안 함께 모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 사람씩 돌아가며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너무나 다르게 살아온 이들이지만, 미래 비전을 나눌 때마다 하나같이 '북한'이 빠짐없이 등장했습니다. 누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수많은 디아스포라 청년의 마음속에 '북한선교와 통일'을 향한 소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환기에 선 북한선교

북한선교의 새로운 물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990년대 북한의 고난 행군 이후 약 30년 동안 이어져 온 북한선교의 한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변화했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이 변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도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주요 통로들이 점점 막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우리 영락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민족은 '여전히' 소중하다

먼저 '민족'을 생각해 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인류는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원자화된 개인으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각각의 민족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요한계시록 7:9)에서 나온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종말론적 비전을 보여줍니다. 이는 민족적 정체성이 마지막 때까지 이어질 것임을 확인해 줍니다. 그런 면에서 민족은 '여전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민족으로 부르셨고 같은 뿌리와 언어,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셨습니다. 다문화성이 확대되는 한국 사회에서도, 민족의 가치는 구시대적인 것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계승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한민족 디아스포라[1]는 북한선교의 새로운 물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가능성

2023년 말 북한의 김정은이 소위 '적대적 두 국가론'을 표명한 이후 남북한을 연결하던 접촉점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유럽과 영미권 글로벌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해왔던 북한 현지 사역도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와 글로벌 사우스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선교를 준비하는 일들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들에게는 언어, 문화, 재정 면에서 더 많은 준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때에 한민족 디아스포라, 특히 고려인, 조선족, 재일교포, 탈북민 등은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북한선교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과 언어·문화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기에, 북한 주민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나누는 데 더 유리합니다.

디아스포라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지난 두 달간 하나님께서 여러 선교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모두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민족 디아스포라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1. '디아스포라'란 그리스어 '흩뿌리다'에서 유래된 말로, 특정 민족이 자의나 타의로 본토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살면서도, 그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유지하는 집단이나 그 현상을 뜻합니다.

먼저 러시아입니다. 잘 아는 대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관계가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두 국가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만강에 기존의 철교 외에 차량용 다리가 신축되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배치된 북한 건설 노동자의 수는 현재 3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향후 그 수는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을 대상으로 여러 선교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등지에는 약 44만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국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수도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들은 경기도 안산시, 광주광역시, 충북 청주시 등을 중심으로 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려인 사회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들과 함께 북한을 향한 선교적 협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약 185만 명의 조선족이 사는 중국의 선교 여건이 매우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조선족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현 상황 속에서도 북한을 드나들며 북한 주민을 만나고 돕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젊은 조선족 목회자는 항상 조선족 청년들을 향해 "조선족의 미래는 북한"이라고 도전합니다. 한편, 2000년대 초반에 많은 북한 여성이 중국에 팔려 갔고, 그때 한족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 어느덧 20대가 되어갑니다. 이 중에는 한국에 유학을 와서 역량을 키우고 있는 청년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국적을 가진 채 어머니의 나라인 북한에 들어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 내에는 한민족 혈통을 가진 이들이 96만 명가량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일 한국인, 재일 조선인(조총련/조선적), 일본 국적 취득자, 그리고 탈북민까지 다양한 집단이 존재합니다. 일본 내 탈북민은 1959년부터 1984년까지 북송 사업으로 북한으로 건너갔다가 탈출하여 다시 일본으로 돌아온 이들로서, 200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오늘날 일본 내에서 이들 간의 경계를 넘는 선교적 만남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민족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국 교회는 지난 수십 년간 중국과 러시아 등 공산권 선교와 일본 선교를 위해 많은 헌신을 해왔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었던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섬김은 절대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한민족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선교의 새로운 물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선교의 가장 큰 역할과 책임은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향한 관심과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의 시행착오를 성찰하면서, 북한에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선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별히 북한을 향해 가장 깊은 마음을 지닌 영락교회가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만남

2026년 북한선교대회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나라”

김형찬 목사
서초교구
북한선교부

자유인예배에서 미리 맛보는 통일의 날

매 주일 오후 1시가 되면 선교관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선교관 입구에서 예배드리러 오시는 자유인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노라면 성도님들이 한 분씩 오십니다. 불편하신 걸음으로 천천히 계단을 오르시는 어르신과 장년 성도님의 손을 잡아드립니다. 지난 주간 시험과 과제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청년, 대학생들과 한 주간의 근황을 나눕니다. 일찍 와서 자기들끼리 뛰어놀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따로 준비해 주신 사탕이나 젤리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아이들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유인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으면, 가끔 자유인이 아닌 남한 출신 성도님들이 이런 인사를 건네시기도 하십니다.

“목사님, 자유인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여긴 영락교회 안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영락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 영락교회 안에서 남북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의 날을 미리 맛보고 있는 자유인예배입니다.

냉랭한 예배 자리에 주신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2024년에 북한선교부 보직을 맡게 되면서 처음 설교자로 섰던 2024년 1월의 첫 자유인예배를 잊지 못합니다. 제가 자유인 성도들에게 낯선 사람이어서 더 그랬겠지만, 첫 주일의 그 냉랭했던 분위기와 꼭 싸울 것처럼 굳어 있던 성도님들의 표정은, 부목사로 10년 넘게 교회를 섬기면서 웬만한 현장은 다 경험해 봤다고 자처하던 저에게도 참 낯설고 당황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아무에게도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 개인적인 고민과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유인 성도들과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까요?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저를 이방인처럼 보는 것, 하나님도 보셨지요? 게다가 이분들은 신앙적 배경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왜 예배드려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남한에서 쓰는 외래어, 간단한 영어 단어도 모릅니다. 완전 북한에서 내려온 새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형찬아, 너 얼마 전까지 새가족부를 했던 거 벌써 잊었니?'

아! 맞습니다. 하나님께선 코로나를 지나오는 3년 동안 저에게 새가족부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3년 동안 믿음의 배경이 없던 이들에게 새가족 성경 강의를 했던 것처럼, 이분들에게도 그렇게 설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쉽게 설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쓰는 아이패드를 선교관 스크린에 연결해서 중고등부, 청년부 설교 때 했던 것처럼 그림을 그리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을 안 갖고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관련 성경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아이패

드로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을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전하려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요셉, 출애굽기의 모세와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인물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설교의 주제에 맞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 안에서 일어난 부흥

그런데 그런 예배 자리에 성령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들고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할 줄 모르던 분이 하나둘씩 손을 들고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의 출석률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마다 새가족으로 오시는 분이 늘어나고, 새가족을 수료하고 정착하는 이도 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지갑을 열고 섬기시는 손길도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자유인 성도(30여 명)와 남한 출신 성도를 포함해서 80여 명이 출석하던 예배가 2026년 현재, 자유인 성도(100여 명)와 남한 출신 성도를 합치면 많게는 170명이 넘는 인원이 모이는 예배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담임목사님께서는 "창립 81주년을 맞이하는 영락교회가 앞에 있는 '8' 자를 지워버리자. 개척교회와 같은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일어서자."라고 말씀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라는 표어를 정해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자유인예배 공동체는 지난 3년간 오직 말씀의 은혜로 부흥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2024년에는 100명, 2025년에는 150명, 2026년 4월에는 170명이 모여 예배하며, 복음 안에서 춤추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밭에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복음이 들어갈 때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북한선교대회를 향한 간절한 소망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번 2026년 북한선교대회를 통해, 온 교회 성도들에게로 퍼져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이제 위기다. 교회에는 이제 소망이 없다."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선교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복[1]하여 회개하고, 다시 말씀 앞에서 은혜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일의 역사에 쓰임 받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영락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단된 대한민국의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통일 한국을 꿈꾸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안남

1. '자복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소몰로게오(Exomologeo)'로, 주로 자신의 죄나 허물을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나라

– 2026 북한선교대회 소개

조원형 안수집사
중구·용산교구
북한선교부 차장

6월이 되면 우리 교회의 많은 제직부서 가운데 북한선교부가 가장 분주한 시기를 보냅니다. 이러한 분주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북한선교부는 기도 가운데 북한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동포사랑기도회 및 북한선교주일 홍보영상 상영

6월 3일, 10일, 17일 수요기도회 시간에는 북한선교대회 홍보영상이 상영됩니다. 올해는 '북중 접경 지역 사역', '자유인 사역', 그리고 '기도 사역 및 다음세대를 세우는 사역' 영상이 소개됩니다. 북한선교주일(6월 21일) 홍보영상에는 헌금의 사용처도 소개하는데, 올해는 '탈북 자유인 선교센터 설립(C국)', '자유인 정착 지원', '복음통일 인재 육성'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북한 영화 두 편 상영 – 〈통일오라〉, 〈신의악단〉

북한선교대회를 맞아 오는 6월 14일(주일) 오후 3시, 북한 인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통일오라〉를 우리 교회 소극장에서 상영합니다. 특히 영화의 주인공인 배우 김보빈 집사가 참석해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진행하며, 영화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직접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는 6월 21일(주일) 오후 2시 40분에는, 올해 초 극장가에서 가장 주목받은 북한 실화 바탕 기독교 영화 〈신의악단〉을 베다니홀에서 상영합니다. 지난 4월 25일 우리 교회에서 상영했던 〈신의악단〉을 놓치셨거나, 다시 관람하고 싶은 성도님들께서는 6월 21일 베다니홀에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선교 대학부·청년회 연합예배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북한선교주일에 대학부와 청년회가 함께 북한선교 연합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벗님들과 청년들이 북한선교의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통일의 시기를 앞당겨 주실 것입니다. 또한 북한선교부 사역 가운데 매달 둘째 주일에 진행되는 안성 하나원 하나교회 방문에는, 지난해부터 대학부 벗님과 청년회 청년이 많이 참여하면서 더욱 풍성한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통일의 전초기지, 송악기도처에서 기도하는 시간

6월 6일(토) 현충일을 맞아 진행하는 송악기도처 기도회 방문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특히 이번 송악기도처 기도회 방문에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서부전선 최전방(DMZ)을 지키는 도라대대 장병과 함께 예배드리며, 위문품도 증정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본당에서 드리는 6월 기도회도 안내합니다. 6월 3일, 10일, 17일 수요기도회를 '북한동포 사랑기도회'로 드리고, 6월 19일에는 '북한선교 금요기도회'를 본당에서 드립니다. 복음통일을 기도로 이루어 가기 위한 '6월 기도회'에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광장 행사, 교육부 전시물 전시, 속도전 떡 등 다양한 행사 펼쳐져

6월 21일 북한선교주일을 맞아 베다니광장에서 풍성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1부, 2부, 3부예배 후에는 자유인들이 베다니광장 무대에서 악기 연주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교육부 여러 부서의 작품 전시와 복음통일을 위한 기도카드 작성 시간도 온종일 마련됩니다. 아울러, 뉴코리아국제학교 홍보, 북한선교연합회 만남의 날 행사도 함께합니다. 특히 자유인예배부가 마련한 속도전 떡 체험 행사도 진행되니,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고 북한 음식을 체험하는 시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찬양예배,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나라

6월 21일 북한선교주일의 피날레는 찬양예배입니다. 탈북 자유인과 탈북 청소년을 위한 사역에 헌신해 온 부산 장대현교회 임창호 담임목사께서 강단에 올라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이라이트는 복음통일학교 상반기 수료생과 북한선교부 스태프가 함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북한선교주일의 모든 순서가 마무리됩니다. 또한 자유인 청년들과 함께 6월 29일(월)부터 7월 4일(토)까지 '성령으로 살아나는 교회'라는 주제로, 일본 땅에 한국인이 세운 오사카와 교토의 여러 교회를 방문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북한선교부는 올해 3월부터 북한선교대회를 준비하며, 우리의 계획보다 더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이번 북한선교대회를 위해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2026 북한선교대회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되는 나라

(로마서 1:16~17)

6.19 금요일 오후 7:30
말씀 : 김운성 담임목사

6.21 주일 오후 5:00
강사 : 임창호 목사
(부산 장대현교회 담임)

6월 북한선교대회 주요일정

3,10,17일(수)	수요1,2부	북한동포사랑기도회, 간증 및 영상	본당
6일(토)	오전9시	송악기도처 기도회	송악기도처
14일(주일)	오후3시	영화상영 '통일오라'(북한 인권 다큐, 배우와의 대화)	소극장
19일(금)	오후7시30분	북한선교 금요기도회	본당
21일 (북한선교주일)	1-5부	북한선교주일 예배 및 공동기도문	본당
	오후1시30분	북한선교 대학부청년회 연합예배	베다니홀
	오후2시40분	영화상영 '신의악단'	베다니홀
	오후5시	찬양예배(임창호 목사-부산 장대현교회 담임)	본당
	종일	기도카드 작성, 교육부 전시, 북한문화체험(자유인예배부, 공연), 북한선교부 사역소개, 뉴코리아국제학교 홍보, 북한선교연합회 만남의 날	베다니광장

※ 자유인 청년과 함께하는 일본비전트립 '성령으로 살아나는 교회'
일정 : 6월 29일(월)~7월 4일(토)

2026년 북한선교주일 헌금은 다음 사역을 위해서 사용될 것 입니다.

- 탈북 자유인 선교센터 설립(C국)
- 자유인 정착 지원
- 복음통일 인재육성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락교회 북한선교부**

영화 <신의악단> 감동 스토리

선교부 문화선교는 지난 4월 25일(토) 오후 3시 베다니홀에서 영화 <신의악단>을 상영했습니다. 이번 6월호에는 영화를 본 세 명의 감상문을 통해, 북한 땅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의 여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이 살아 숨쉬는 북한땅

이진우 전도사
북한선교부

우리도 '신의 악단'입니다. 곧 '하나님의 악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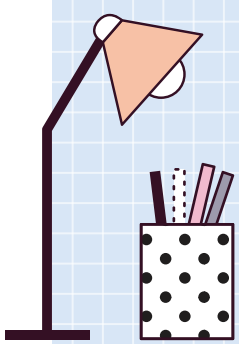
이 영화는 국제 NGO로부터 거액의 지원을 받기 위해 '가짜 찬양단'을 조직하면서 시작됩니다. 어딘가 어색하고,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인물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흐르며, 점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인물은 북한 보위부 소좌 박교순(박시후 분)입니다. 그는 체제에 충실한 인물로, 신앙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찬양 연습을 하던 중 갑자기 목이 메고 눈물을 흘립니다. 박교순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동요가 아니라,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나는 메시지는, 복음은 절대 감춰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짜로 시작된 찬양이 진짜 눈물이 되고, 연기처럼 부르던 노래가 어느새 진심의 고백으로 바뀌는 순간, 그 자리에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며 한 가지 더 마음에 남은 것은 북한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곳을 '닫힌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말합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은 살아 숨 쉬고, 오히려 더 깊고 진하게 살아 움직인다고.



결국 이 영화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도 신의 악단인가?' 가짜로 시작했지만 끝내 진심의 고백이 된 그들의 이야기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악단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내는 작은 소리 하나, 삶의 리듬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찬양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연주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 연주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고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흥이 시작된 곳으로 올라가

임서연 전도사
북한선교부

저는 북한선교부를 섬기고 있는 임서연 전도사입니다. 남한의 성도님들과 함께 북한선교에 관한 영화를 관람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영화는 오직 외화벌이를 위해 '가짜 기독교인' 행세를 해야 하는 북한 장교와 단원들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당의 지시에 따라 예배드리는 연기를 하고, 가사를 외워 찬송을 부르는 그들의 모습은, 북한 체제의 비극적인 단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곳에서 음악과 예술은 김씨 일가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었을 마음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음악을 했지만, 그 내용은 전부 당 선전용 예술이었습니다. 음악은 영혼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하는데, 북한에서는 개인의 자유는 물론 감정의 자유조차 철저히 통제됩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의 명령으로 가짜 찬양대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감시하던 사람들조차 성령의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히 역사하시는 성령님 앞에서 그곳에 숨어 있던 성도들도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리 어둠이 그들을 집어삼킬 듯하여도, 장교들은 묵묵히 성도들을 구하고 마침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섭니다. 죽음도 찬양하는 성도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을지 생각하며 정말 많은 눈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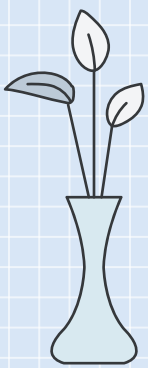
흘렸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지하교회나 성도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당국이 저렇게 다 잡아 가두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북한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부흥이 시작된 그곳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죽음보다 깊이 울린 찬양

이지민 집사
강서·구로·양천교구

〈신의악단〉은 당의 명령으로 찬양단을 시작하지만, 결국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영화입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처음에는 명령으로 시작한 찬양이 점차 진심의 고백이 되어 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가는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도 자유롭고 편하게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지구 곳곳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음까지 감당해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강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야 할 존재임을 새삼 깨닫게 된 하루였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사이의 이질감 때문에 요즘 마음이 매우 힘들다고 여겼는데,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쳤던 우리 선조가 떠올랐습니다. 당의 명령을 다 완수하고도 결국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무섭고 두렵지만 담담히 받아들이는 그들의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에, 우리의 뜻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모두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전쟁의 와중에서 생각하는 호국보훈의 달

홍성표 안수집사
관악·금천·동작교구
안수집사회장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세계 곳곳의 전쟁이 보여 주는 참상

건실한 국민이라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쟁과 나라의 안위를 생각해야 한다. 러시아의 불법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4년 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 전쟁에서 양측에서 도합 2백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국민은 난방도 없는 혹독한 겨울 추위를 다섯 번이나 겪어야 했다. 주요 국가 인프라는 대대적으로 파괴됐고, 학교와 병원, 심지어 민가마저 무자비하게 폭격을 맞아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전쟁의 폐허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가해졌다.

또 지난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가자지구는 이미 초토화되었고,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지역도 준 폐허가 되고 있다. 아브라함을 공통의 조상으로 둔 이 두 족속 간의 전쟁은 역사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시비를 가리기도 힘든데, 양측은 물러설 땅이 없는 죽음의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도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 핵무장을 막으려는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이란은, 무고한 국민의 목숨을 볼모로 무모한 저항을 계속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이 음성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양측은 일시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권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전쟁의 근본 문제는 그 승패보다도 당장 무자비한 전쟁의 화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치명적 피해를 입어야 하는 무고한 국민의 고통과 역경이 더 크다는 데에 있다. 선량한 국민이 왜 이러한 전쟁 참화를 겪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전쟁의 기억과 호국의 희생

다행인 것은, 휴전 상태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횡행하는 전쟁의 화마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평화를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76년 전 북한 공산군의 불법 남침으로, 우리 선대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황이 바뀜에 따라 좌우익으로 갈리며 상대방을 도륙하는 참혹한 동족상잔을 겪어야 했다. 어떤 동네는 공산군이나 유엔군이 전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서로 편이 갈려 자기네들끼리 죽이고 죽는 참상을 벌이기도 했다. 사탄의 궤휼로 초래된 무참한 살육 현장이었다. 그랬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은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터져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6.25전쟁에서 우리 선대들은 나라를 지키는 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낙동강 전선에서 최후 보루를 지켜내야 했던 백선엽 사단장은 부하들에게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라고 명령하고 목숨 바쳐 전선을 사수했다. '육탄 십용사'는 미아리고개를 올라오는 적 탱크를 향해 폭탄을 안고 돌진, 자폭하여 적들을 산산조각냈으며, 충북 음성의 십 대 소녀 김재옥은 적군에게 점령당한 동네에서 목숨 걸고 탈출하여 국군에게 적정을 알려 첫 승전고를 울리게 했다. 이처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선열들의 일화는 수없이 많다. 모두가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렸던 것이다.

평화를 지킬 힘과 호국의 다짐

3대째 정권 세습하며 호전적인 군사도발을 일삼아온 북한을 상대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금까지 인내하며 위기를 관리해 왔다. 어찌됐든 전쟁은 막아야 하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자강력을 키워야 한다. 자강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전쟁은 동맹과의 연합방위 전선 구축이 필수이다. 한국은 최근 K-방산으로 방위역량을 한껏 높이고 있고, 또한 전통적인 한미동맹도 상호 의존적 전략동맹으로 강화됐다. 중국과 러시아의 후광으로 무모한 군사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의 도발이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국가 위기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우리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며 감사한 마음을 되새겨,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하겠다. 만남

아버지의 한국전쟁, 탈북자의 하나님

故 김철호 집사
(1930~2024)

전쟁 한복판에서 지켜 주신 하나님

1948년, 한경직 목사의 존함 하나 품고 평남 순천에서 낯선 서울로 온 18세 탈북 소년의 이야기다.

영락교회는 한없이 탈북인을 받아줬다. 교회 바닥에서 재웠고, 깡통에 보리죽을 나눠 먹였다. 소년은 가족과 약속한 공부를 위해 경성전기 검침원이 되었다. 일하며 공부하여, 2년 후 1950년 6월 서울대학교 경제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결핵성 늑막염으로 각혈하며 쓰러져 서소문 한일병원에 입원했다.

1950년 6월 25일

병문안 온 친구들은 아코디언을 연주하며 놀다 갔다. 낮의 포성은 늘 있던 38선 교전 같아 무심했다. 다음 날 북한군이 서울에 거의 당도했다. 라디오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이 북괴를 물리치니 동요 말고 서울에 머무르라 했다. 모두 사라졌는데 담당 의사만 침착했다.

김영미 권사
고양·파주교구
북한선교부 하나원 팀장

6월 27일, 서울 함락

따발총을 멘 북한군이 들이닥쳤다. 피 흘리는 부상병들을 내려놓은 북한군은 환자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동무, 걸을 수 있소?" 공포에 병원을 나섰다. 거리에 시체가 즐비했다. 현실감이 없어 무섭지도 않았다. 갈 곳이 없으니, 저녁에 병원으로 돌아갔다. 담당 의사는 "그 몸으로 어딜 갔었냐?"라고 호통친 후, 북한군에게 저 환자는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다. 그날 밤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그 의사가 사상교육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로당이었다. 꼼짝없이 북한군과 지냈다. 결핵이니 누구도 가까이 안 왔다.

9.28 서울 수복

병원은 폭격을 면했다.

북한군이 퇴각하면서 그 의사가 찾아왔다. "너를 데려갈 수 없으나 죽이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비에 젖은 병원 건물에 산송장 하나가 남겨졌다.

곧 국군이 들어왔고, 송찬호 대위가 말을 걸어왔다. 평남 출신 경제학도였던 그는, 이 청년이 경제학을 공부하겠다고 하자 동생 같은 연민을 느꼈다. 공부를 돕겠으니, 건강만 신경 쓰라 했다.

국군과 지낸 3개월 후 중공군이 개입했다.

생전의 김철호 집사, 이길선 권사

故 김철호 집사 큐티노트

1951년 1.4 후퇴

다급한 송 대위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사람은 걸을 수 없다. 부상병 기차에 실어라.”

스무 살 청년은 그렇게 부산으로 가게 되었다. 부산에서는 전시연합대학에서 공부했다.

국군도 북한군도 차출할 수 없는 결핵 중환자였지만, 죽어가면서도 공부했던 건 북의 가족을 만날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기도로 남겨진 믿음의 유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삶을 통해 보았다.

병약함을 통해 살리시고 공부시키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후일 아버지는 경제학자로 경제개발계획에 오랜 기간 일하셨다. 국회가 열릴 때면 밤새우셨던 기억이 선명하다.

무엇보다 아버지는 기도를 유산으로 남기셨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마음에 새겨졌다.

‘말씀 따라 성실하게’

나라와 교회와 이웃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셨고, 믿지 않는 지인들의 이름은 수첩에 적어 놓고 기도하셨다.

“북의 가족들, 어떤 어려움에도 예수님 잘 믿고, 허락하시면 이 땅에서 만나길 소원합니다.”

94세로 소천하시는 순간에도 기도의 손을 모으고 떠나신 아버지. 2024년 6월 6일은 현충일이자 먼저 가신 엄마 생신날이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구역과 친족을 정성껏 섬겼던 마음 부자 어머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는 믿음만이 참된 유산이다.

오늘의 탈북자를 향한 부르심

매월 하나원을 방문한다.

“아는 사람 없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어떻게 살아야죠?”

그 불안한 눈빛에서 18세 탈북 소년의 모습을 본다.

1940년대와 2020년대는 다르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던 80년의 세월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많은 은혜를 입은 나라다.

탈북인들과 함께 성장한 영락교회의 소명은 더 분명해져야 한다.

하나님의 뜻으로 남한에 오신 자유인들은 축복의 증인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승리와 영광을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북한의 가족을 잊지 말고, 주님께서 예정하신 복음 통일을 함께 기대하십시다. 만남

샤울레이 십자가 언덕에서

샤울레이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214㎞나 떨어진 도시로, 이렇다 할 볼거리가 딱히 없다. 그런데도 발트 3국을 찾는 관광객 대부분은 샤울레이 시 외곽에 있는 '십자가 언덕'을 찾는다. 리투아니아에서 라트비아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리투아니아 국민이 민족의 성지처럼 여기는 곳이기 때문이다.

샤울레이 십자가 언덕의 유래

샤울레이 언덕에 처음 십자가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반 무렵이었다. 폴란드 독립운동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 반러시아 민중 봉기 이후 러시아군에 무참히 살해된 사람들을 애도하고, 시베리아로 끌려간 사람들의 무사 귀환을 염원하며 세운 것이 시초였다. 그 후 1918년 독립 전쟁 당시 숱하게 스러져 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십자가가 더해졌다. 그러다가 1920년대 마침내 독립을 이루면서, 십자가 언덕은 마치 민족의 성지처럼 되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리투아니아를 병합한 소련은 민족의 성지처럼 여기는 이곳을 없애려 불을 지르고, 불도저로 밀어버렸다. 그때마다 이곳에는 이름 모를 누군가에 의해 끊임없이 다시 십자가들이 세워졌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나지막한 언덕은 1991년 리투아니아가 독립하면서 비로소 고통과 위로의 언덕이 되었다. 지금은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까지 십자가를 꽂거나 걸어 놓아 그 수효를 헤아릴 수 없게 되었다.

샤울레이 십자가 언덕에서

샤울레이 가는 길은 가도 가도 온통 초록의 평원뿐이다. 이따금 거대한 숲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도로 양옆으로 초록의 밀밭과 유채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게다가 청잣빛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하얀 구름은 또 어찌나 아름다운지….

빌뉴스를 떠난 지 두 시간 만에 샤울레이 십자가 언덕에 도착했다. 음악감독 박칼린을 모델로 했다는 이문열의 장편소설 『리투아니아 여인』에 등장하는 바로 그곳이었다.

김응기 집사
노원교구
홍보출판부 교열위원

샤울레이 십자가 언덕 전경

사정없이 내리쬐는 뙤약볕 아래, 아내와 함께 십자가 언덕길을 오른다. 언덕에는 일일이 셀 수도 없을 만큼 크기도, 모양도 각기 다른 십자가들이 빼곡히 서 있다. 그 풍경을 마주하니 절로 마음이 숙연해진다. 대체 무슨 애절한 사연이, 어떤 간절한 소망이 이토록 많은 것일까?

신산하기만 했던 어머니의 피란길

어머니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피란길에 오르셨다. 아버지는 당시 청방(靑防)에 참여해 마을을 지키시느라 피란을 떠나지 못하셨다. '청방'은 '청년방위단(靑年防衛團)'의 줄임말로,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남침에 맞서 싸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민간 방위 조직이었다.

어린 두 남매를 데리고 떠난 어머니의 피란길은 신산하기 이를 데 없었다. 세 살배기 아들은 업고 여덟 살 딸애는 손을 잡은 채, 머리 위엔 보따리를 이고 남은 손으론 짐꾸러미를 들었다. 그야말로 남부여대(男負女戴), 손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게다가 난리 통에 끼니를 제때 챙긴다는 건 언감생심이었다.

결국 세 살배기 아들은 그 길 위에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다. 엄동설한이라 자식의 주검을 제대로 거두지도 못한 채, 피란길 근처 적당한 곳에 쌓인 눈으로 대강 덮어 둘 수밖에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남은 딸마저 홍역을 앓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축 늘어진 딸을 들쳐업고 다시 모진 피란길을 재촉해야만 했다.

그 후 고향에 돌아온 어머니는 피란길에 죽은 어린 자식을 가슴에 묻고 악착같이 살림을 일구셨다. 그러다가 자식들이 모두 장성해서야 난리 통에 잃은 어린 아들 이야기를 가끔 입에 올리셨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회한에 잠기셨다. 당신의 잘못인 양 자책하며 먼저 떠난 아들을 그리워하셨다.

십자가를 매달며

7남매의 막내였던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야 평생 그 죄책감 속에 사셨을 어머니를 한 번도 제대로 위로해 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못내 마음에 걸렸다. 어머니의 마음을 단 한 번도 깊이 살펴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송구했다. 이번 여행길에 특별히 샤울레이 십자가 언덕을 찾은 것은 그래서였다. 늦게나마 불쌍한 영혼을 달래는 이곳 진혼의 언덕에서 어머니의 영혼을 위로해 드리고 싶었다.

커다란 십자가 한쪽 끝에 준비해 간 십자가를 매달았다. 그늘 하나 없는 땡볕 아래에서, 평생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태양은 여전히 강렬한 뙤약볕을 사정없이 쏟아붓고 있었다.

이제는 샤울레이를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다. 지나고 보니 이틀간의 리투아니아 여정도 순식간이었다. 라트비아 수도 리가는 이곳에서 멀지 않았다. 만남

사랑에 빚진 지극히 작은 자의 소명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야』의 저자 이선민 성도는 현재 '헤이븐'이란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작은 믿음에 허락된 부르심

오늘날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분명 누군가에 의해 전도되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가 없다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한 것을 믿을 수는 없기에 전도의 미련함으로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며, 먼저 믿은 자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릅니다. 만인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룩한 특권은, 곧 모두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믿고 신학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저의 이러한 순종이 막연하긴 했지만, 매우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선민 성도
고양·파주교구

첫 소명이 거두어지고, 광야로 내몰리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 믿었던 그 순종 뒤에 펼쳐진 저의 인생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지 생각할수록 처량한 현실에 몸서리쳤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라 믿었는데, 애쓰고 힘쓸수록 삶은 오히려 더 메마른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천로역정』의 주인공처럼, 어쩌면 '사명'이라는 짐을 스스로 제 등에 짊어지려 했던 것이 실수였을까요. '모든 것을 멈추고 제자리로 돌아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오랫동안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시간에도 '내 증인이 돼라.' 하신 말씀에 대한 책임감은 늘 마음 한편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과 그 쓰임은 어떤 모양일까?'라는 물음은 안개처럼 내려앉아 깊은 묵상의 자리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인의 시나리오 작업을 돕게 되면서, 오래전 마음에 묻어 두었던 작가의 꿈을 다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빛바랜 이야기를 꺼내 조

금씩 써 내려갔고, 가망 없어 보이던 글을 다듬고 다듬어 마무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공모전 당선'이라는 뜻밖의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선물은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응답이자 새로운 길로의 초대임을 확신하게 해 주었습니다. 작가라는 타이틀은 무척 어색했지만, 노력이 아닌 선물로 주어진 이 두 번째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절대적 사명이자 의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소극적 사명으로의 두 번째 부르심

그러나 아무 준비 없이 찾아온 기회를 선뜻 붙드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전업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직장생활과 대본 작업을 병행하면서도 이렇다 할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투자 제안을 받고 큰 기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계자의 어이없는 실수로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되돌이표 같은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삶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광야로 내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업적 성공으로 주어지는 만족감이 결코 사명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과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선명하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첫 부르심이었던 사역의 길에서 돌아서며 마주했던 고독감은 저를 '자발적 은둔자'로 만들었지만, 반대로 그 고독이 강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글쓰기는 말과 달리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며 생각의 오류를 줄이고 진심을 가다듬을 수 있어 실수가 적다는 것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방식이 오히려 제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되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은 부르심은 하나님께 진 빚, 곧 사랑을 갚아 나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받은 은혜처럼, 값없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든 세상에 흘려보내야 한다는 '부채 의식'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전도가 더디고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부채 의식을 책임감으로 발현해 내는 것, 그것이 제가 감당해야 할 마지막 사명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괴수가 써 내려간 가장 아름다운 광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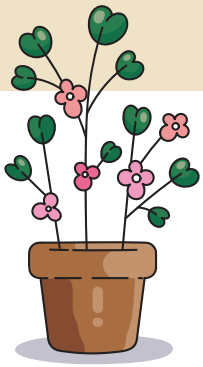
'죄인 중의 괴수'라는 바울의 고백은 겸손이 아니라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와 같은 괴수에 지나지 않기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부끄러움이 남아 선택한 소극적인 방법, 곧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말이 아니라 고치고 덜어내어 실수가 덜한 글쓰기가 복음 전도의 도구로 쓰이게 되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흙먼지 가득한 광야를 지나왔고, 오늘도 여전히 그 연장선 위에 서 있지만, 저의 시선만은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 아버지의 집을 향해 있습니다. 그 간절한 사모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야』라는 첫 신앙 도서를 세상에 내어놓으며, 지극히 작은 자로서 소극적 사명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었습니다.

거저 받은 은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책임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기에, 비록 소극적인 선택이었던 무명작가로 살아가는 저의 현재를 기쁘게 받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만남

멈춘 줄 알았던 구역, 다시 흐르는 은혜

– 인천교구 23구역



다시 시작되는 구역 모임의 기대

제가 맡은 구역은 중동 근처에 살고 있는 16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역은 이사 가더라도 그대로 남기를 원하는 세대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강화도, 광명시, 서울 종로구까지 넓은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구역장은 당연히 맡겨주신 귀한 구역 식구들을 사랑과 기도로 보살펴야 하는데, 핑계 같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구역 모임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6년부터는 3월 연합금요권찰모임 개강 때와 12월 종강예배를 빼고는 매월 첫 주 금요일에 구역예배 모임을 하고, 권찰 모임은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구역에서 구역 모임을 하는 날로 정해졌다는 목양 방침이, 저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으로 들려왔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일도 많고 거리가 멀어 시간을 맞추기가 여의치 않아 부담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화 심방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받지 않거나, 찾아가도 직장에 다니는 분이 많아 얼굴도 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구역 모임에 잘 나오시던 어르신들도 한 분 두 분 소천하시거나, 연세 많으신 분들은 구역장을 생각해 구역 모임에 선뜻 나오지 못하시니 점점 모이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제1회 구역장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잠자는 영을 깨우는 훈련과 기도회 덕분에 예전처럼 열정과 넘치는 소명감을 회복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송봉혜 권사
인천교구 23구역장

작은 모임의 회복, 다시 살아나는 구역

예전에 하다가 멈춘 귀한 구역 모임을 다시 활성화해야겠다는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 일일이 다시 전화 걸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오랜만에 4월 첫 주에 다섯 가정이 구역 모임을 하게 되었으며, 목사님도 오셔서 예배와 축복 기도로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6월에도 젊은 집사님 댁에서 구역 모임을 계획하는 과정을 통해, 교회 안의 작은 조직인 우리 23구역에 사랑이 싹트고 부흥이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구역 식구들과 함께하는 시간, 신앙이 함께 성장하기를 기도한다

구역장을 빚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구역장으로 섬기며 경험한 재미있고 은혜로운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처음 구역장을 맡을 때는 열정이 대단해서 매주 한 번씩 구역 모임을 했었는데, 주로 은퇴하신 권찰님들이 5~6명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 같은 구역 식구들을 제게 맡기시며 사랑하라 하셨음에도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잘 참석하지 않으시는 분에게는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해에 교회에서는 교구별로 모범 구역을 선정해서, 구역예배와 인터뷰를 하는 동영상을 찍어 연합구역권찰공부 때, 본당에서 보여주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인천교구에서는 우리 구역이 선정되어 동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인터뷰 중에 구역 칭찬을 해 보라고 했더니, 당연히 매주 나오신 분 중에서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모두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잘 나오지 못하신 은퇴 권사님이 칭찬을 훌륭하게 해줌으로써 촬영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모범 구역 촬영을 잘 마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는 행위에 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구역은 한식구로 맺어진 사랑의 공동체이므로, 꼭 필요한 사명대로 쓰이고 있음에도, 인간의 판단으로 그분에게 섭섭한 마음을 품었던 제게 사랑이 부족했음을 깨닫고서야, 비로소 사랑의 영역을 넓혀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금으로 받은 식사비로 모두가 원하는 돼지갈빗집에 갔는데, 마침 그날부터 일주일간의 기념행사 덕분에 음식값을 50% 할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이나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구역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음을 믿습니다. 저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구역장을 맡겨주셨는데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귀한 구역 식구들을 다시 사랑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구역예배도 활성화되어 구역이 살아나고, 모두의 신앙이 성장하여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남

복음의 기쁨으로 피어난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

지난 5월 2일(토)에는 제29회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이하 꽃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번 꽃잔치는 '하이탐험대, G를 찾아줘!'라는 주제 아래,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기쁨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함께 고백하고 경험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꽃잔치에는 어린이, 부모, 교사 등 약 900명이 함께했고, 맑고 화창한 날씨 가운데 복음의 기쁨과 공동체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습니다.

꽃잔치는 예배로 시작해 예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뮤지컬 형식으로 드려진 여는 예배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인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래요!"라고 함께 선포하며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복음팡팡 놀이터'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아이들은 복음 키캡을 직접 완성하며 복음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영·유아·유치부 교사들의 세심한 섬김 속에서 많은 가정이 따뜻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닫는 예배에서는 'GOSPEL'이라는 단어를 따라 다시 한 번 그 의미를 새기고, 모두가 '하이탐험대'가 되어 복음으로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은혜 가운데 꽃잔치를 마무리했습니다. 맏남

공예은 전도사 _ 유치부

봄음마을

비워낸 자리, 하나님으로 채워진 은혜

사순절 프로그램

최명철 성도
대학부 다윗마을

작은 결단 속에 깊어진 묵상

이번 사순절 6주 동안, 매일의 작은 결단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 애쓰는 시간이 쌓이면서, 이전에는 스쳐 지나갔던 순간들이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형식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럴수록 십자가를 바라보며 제 마음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며, 삶의 태도와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필사를 하며 손을 느리게 움직이던 순간, 릴레이 기도로 서로의 이름을 부르던 순간, 금식하며 비워낸 자리에 말씀을 채우던 순간들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각각의 미션이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조금 더 솔직하게 설 기회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식하며 다니엘서를 읽던 중,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다니엘 2:20)라는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비워낸 자리에 하나님의 크심이 채워지는 것을 느끼며,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시 고백했습니다.

꾸준한 순종이 남긴 변화

6주간의 미션을 완주하며 깨달은 것은 '꾸준함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거창한 변화보다, 매일의 작은 순종이 제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에 더 큰 힘이 되었고, 서로의 믿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따뜻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단순한 기간이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일상에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제 모습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고, 앞으로도 꾸준히 믿음을 지켜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만남

내려놓으신 사랑, 변화된 나의 삶

한대남 성도
대학부 다윗마을

고난과 부활 앞에서 새긴 사랑

이번 부활절은 대학부 학생회가 준비해 6주간 진행된 사순절 미션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몸소 기억하려 노력한 끝에 맞이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방덕종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을 취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왜 그 능력을 내려놓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짧은 식견으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도 배우고 행하길 바라셨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죄를 대속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며 허락하신 부활과 천국의 특권은 결코 가볍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힐 각오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삶 속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

사실 저는 공감하는 데 조금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전하기 위해 저도 변화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친구의 말에 귀 기울이고, 부끄럽지만 리액션도 연습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더 웃으며 인사하고, 친구가 고민이 있어 보이면 먼저 말을 걸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처음으로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영적인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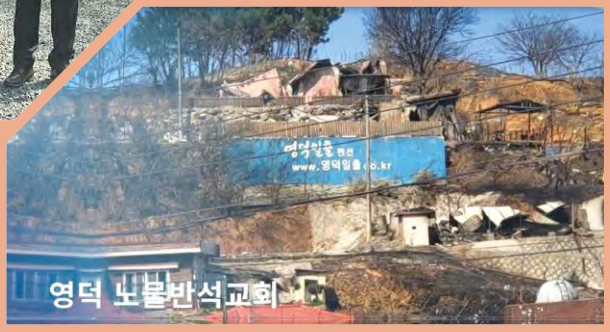
또한 이제는 성경책과 노트를 챙기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니 삶에 여유가 생기고, 공부도 조금씩 잘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전도사님, 친구들과 함께 주중에 말씀 읽기를 하면서, 제 삶에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두려워지고, 주님 앞에서 저 자신을 더 살피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라는 공동체를 향한 감사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게 된 동기는 대학부 가족과 사역자님들의 '사랑과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학부 벗님들도 함께 성장하고 있고, 우리 대학부는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감사하게 됐으며, 동시에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푯대를 따라 함께 더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매일 매 순간 예수님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지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남

낮은 곳을 향한 영락의 발걸음, 농어촌선교 현장에서 피어난 은혜

임종환 안수집사
노원교구
선교부 농어촌선교1팀장



80년을 이어온 영락의 농어촌선교 정신

우리 영락교회는 창립 초기부터 '민족 복음화'라는 거룩한 비전 아래, 도시와 농어촌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길을 모색해 왔습니다.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지방 소멸과 초고령화, 그리고 갈수록 열악해지는 농어촌 목회 환경은 우리에게 큰 위기로 다가와 있습니다. 하지만 영락은 이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창립 80주년을 앞두고 우리 농어촌선교팀은 단순한 일회성 구호 물품 전달을 넘어, 농어촌 교회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닦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제110회기 총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전국 69개 노회와 3천여 개에 이르는 농어촌 자립 대상 교회들을 향한 영락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자 힘써 왔습니다. 이는 과거 선배 신앙인들이 뿌린 눈물의 씨앗을, 우리가 이어받아 정성껏 가꾸는 소중한 계승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땀과 눈물로 쓴 사역의 기록들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농어촌선교팀은 김진우 지도목사, 최인 전도사, 서상현 부장장로를 비롯한 임역원들, 그리고 제1여전도회 임역원들과 하나 되어 전국 팔도강산을 누볐습니다. 책상 위에서 서류로만 만나는 선교가 아니라, 흙먼지 날리는 현장에서 목회자들의 손을 맞잡는 '동행의 선교'를 실천했습니다.

▶ 동반목회의 심화: 진주, 충남, 충주, 서울

강원동노회 등 5개 노회 소속 22개 교회를 정기적으로 후원하며, 연 1회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회 지원비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그분들의 사역에 큰 위로와 용기가 된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구성된 제1여전도회 이은혜 권사 외 임역원들과 선교부 김진우 지도목사, 서상현 부장장로, 이태식 국내선교차장 등 우리 농어촌선교팀의 책임감을 다시금 새기고 있습니다.

▶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손길

봉화 송내교회의 노후 지붕 및 화장실 리모델링, 서울노회 몰운교회의 노후 선교관 지붕 및 화장실 리모델링, 홍천 서면중앙교회의 엘리베이터 설치 지원, 서울노회 무왕교회의 위험한 축대 정비 사업 지원 등은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 고난 중에 함께하는 이웃

안동 용각교회와 영덕 노물반석교회의 안타까운 화재 소식에 곧바로 달려가 위로금을 전달하며,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영락의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 연합의 기쁨

서울노회 자매교회 간담회와 총회 농어촌목회자 전국 선교대회를 통해 도시와 농촌 교회가 서로의 강단을 교류하고, 영적 문화를 나누는 연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특히 자매교회와 지역 특산물을 나누는 '도농 직거래'의 시도인 '충남노회의 직거래 장터'는 상생선교의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지속 가능한 선교 모델을 꿈꾸다

우리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 선교를 꿈꿉니다. 단순히 돕는 것을 넘어, 농어촌 교회가 지역 사회의 중심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총회농촌선교센터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 시설' 지원사업은 에너지 자립을 통한 실질적 재정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목회자들이 전기기능사나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등 실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교회 시설을 직접 관리하고, 나아가 마을 공동체의 기술적 조력자가 되는 '전문성 있는 목회'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이는 영락교회가 지향하는 '생명 목회, 생명 농업, 생명 살림'의 가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발걸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신발 끈을 조이며

농어촌선교 현장에서 만난 목회자들의 거친 손마디와 그 속에 깃든 맑은 눈망울은 오히려 저에게 더 큰 은혜와 도전을 주었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신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던진 선교의 떡이 농어촌 곳곳에서 생명의 열매로 돌아올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팀장으로 섬기게 하시고 쓰임 받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영락교회 농어촌선교팀은 낮은 곳을 향한 주님의 시선을 잊지 않고, 가장 소외된 곳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작은 교회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완남

청년의 심장에 복음의 불을 지피다
- 연천 열쇠부대 군전도를 다녀와서

박수연 집사
마포·영등포교구
전도폭발훈련생

푸르른 4월의 봄날, 우리 전도부 팀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민통선 인근 연천 열쇠교회로 향했습니다. 2026 전도부 60여 명의 동역자가 한마음으로 뭉친 이번 전도 여정은 이 땅의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심다

예배 후 군 장병들과 만나 복음을 제시하는 시간, 60여 명의 전도대원은 병사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처음 마주한 세 분의 상병 병사님에게 마음을 열고자 진단 질문을 했습니다. "병사님께서는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군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기적

처음에는 다소 굳어 있던 표정이었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이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생은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며, 참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정성껏 준비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려는 간절함이 전해졌는지, 장병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마침기도 후, 결연카드에 "건강하게 전역하게 해주세요."라고 투박하지만 솔직한 개인 기도제목을 적어 주었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축복을 마음에 품고 중보했습니다. 이 중 상병 한 분의 결연카드의 "전역해서도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 한 줄이 지금까지도 계속 기억에 남았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음에도, 복음 앞에 진지해진 그들의 눈동자에서 영생의 기쁨을 확신하는 결신의 순간을 보며, 저의 마음에도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복음의 씨앗을 심었을 뿐이지만, 이 씨앗이 그들의 군 생활은 물론 사회로 돌아가는 삶의 여정에서도 귀하게 싹트기를 소

열쇠교회 앞에서 군종목사, 전도부 김종훈 목사와 부원들

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삶이 변화되고, 거듭남의 은혜로 매 순간 승리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을 전하러 가서 더 큰 사랑을 담아 오다

1부 예배 중 드려진 영락교회 스티그마 워십팀(Stigma Worship Team)의 스킷 드라마(Skit Drama, 설교 전후로 짧게 상연되는 극, 약 5분)는 장병들의 마음을 여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대사보다 강렬한 몸짓과 음악으로 표현된 복음의 메시지에 장병들은 시선을 고정했고, 예배당 안은 이내 깊은 몰입과 은혜로 가득 찼습니다. 눈높이에 맞춘 감각적인 찬양 사역이 청년 장병들의 심장을 두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작은 정성을 준비해 나누러 갔지만, 오히려 교회 측에서 예상보다 훨씬 풍성한 선물과 대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라는 말씀처럼, 전도의 현장에서 도리어 위로받고 채워짐을 경험하는 역설적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역을 마치며 준비한 사역을 은혜로이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번 군 전도는 2026년 표어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로 나아가는 영락교회 전도부 안에서 큰 결속과 기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을 그들에게 나누기 위해 갔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준 열쇠교회와 장병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낮은 자의 입술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뿌린 스킷 드라마의 감동과 복음의 씨앗이 열쇠부대 장병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평신도 선교사의 길
그 곁을 밝히는 소리선교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요한복음 1:23)

강효식 안수집사
노원교구
소리선교회 회장

소리선교회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소리'로 살아가고자 하는 영락교회 평신도들의 모임입니다. 선교부에 소속된 이 작은 공동체는 선교의 사명을 마음에 품은 이들이 모여, 해외 선교와 고아 양육 사역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소리선교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 이 자리를 맡았을 때는 기대보다 부담과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께서는 저의 부족함보다 더 크신 은혜로 그 자리를 채워 주셨고,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통해 제 믿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매달 셋째 주 열방예배에서 나누어지는 선교지 소식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살아 있는 복음의 이야기

네팔에서 시작된 한 사역이 특히 깊이 남아 있습니다. 버려진 신생아들을 품으며 시작된 작은 섬김이 시간이 흐르며 청년과 대학생으로, 나아가 국가대표 선수로까지 자라난 이야기는 한 생명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놀랍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사진 1)**

1 네팔 고연희 선교사와 이삭이

2 요르단 최요셉, 최진리 선교사

지난 5월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에서 특송

요르단의 '비전의 집'에서는 전쟁을 피해 온 아이들이 다시 배우고 웃으며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닫혀 있던 마음이 열리고, 이제는 선교사의 꿈을 품게 되었다는 소식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소망을 심고 계심을 보여줍니다.**(사진 2)**

인도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음악을 나누며 예배를 돕는 소박한 섬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려함은 없지만, 그 작은 섬김이 아이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믿음의 씨앗으로 자라나고 있음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선교지의 현실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전쟁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어떤 상황에도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고백이 마음에 남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절대 미약하지 않다.' 우리의 기도와 작은 후원이 누군가의 삶과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 더는 기도를 가볍게 여길 수 없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

소리선교회는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함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평신도 선교는 몇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드리는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크고 놀라운 이야기 속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소리선교회는 오늘도 '외치는 소리'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작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사용하셔서 생명을 살리시고 길을 밝히실 것을 믿으며, 그 은혜의 이야기에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만남

가장 추운 곳에서 태어난 나를 가장 따뜻한 사랑으로 품으신 하나님

영락교회 몽골어예배에서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반즐라크치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인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과거 몽골로 유학을 왔다가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며 만났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인연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저를 건져 내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반즐라크치 전도사
몽골어예배

척박한 땅,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곳

저는 울란바토르에서 1,000km 떨어진, 몽골에서 가장 춥기로 유명한 옵스(Uvs) 아이막 지역의 유목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옵스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매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거친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강하고 용기 있고 부지런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우리 고향은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선교사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라는 서양 사람이 진짜 몸으로 오는가 보다." 하며 기다리실 정도로 복음에 대해 무지한 곳이었습니다. 저희 집안 또한 대대로 내려오는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고, 저희 할

아버지는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라마 승려였습니다. 몽골의 역사와 문화 속에 기독교의 흔적이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대(代)가 끊긴 탓에 제게 기독교는 그저 '남의 나라 종교'처럼 느껴졌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들린 생명의 음성

고등학교 시절, 저희 가정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부모님의 불화는 깊어졌고, 저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 끝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손목을 긋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고, 약을 먹고 쓰러져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부족함 없이 자란 듯 보였지만, 제 마음 깊은 곳은 늘 공허하고 외로웠습니다.

바로 그때, 복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높은 보좌와 권능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메시지는 제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죄 사함과 화해, 회개와 거듭남, 그리고 부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이 진리들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저는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랑이 저를 채웠습니다.

좁은 길, 그러나 사명의 길

믿음을 지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불교 전통이 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고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비전'이라는 삶의 이유를 주셨습니다. 비전이 없는 청년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저를 복음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최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죽어 있던 저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를 통해 몽골의 많은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훈련시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몽골 땅에 새봄을 기다리며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꽁꽁 얼었던 땅 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금 몽골 땅도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영락교회 몽골어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믿음의 용사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에 휘둘려 꿈과 가치를 잃어버린 청년들에게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길이자 진리요, 생명입니다."

저를 구원하신 것에 멈추지 않고, 이 거룩한 구원 사역에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만남

평범함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실하심**

권현준 전도사
대학부

평범한 삶에 심어 주신 믿음의 뿌리

올해부터 영락교회 대학부에서 섬기게 된 전도사 권현준입니다. 귀한 지면을 통해 성도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처음 '교역자 노트'에 어떤 이야기를 담을까 생각했을 때 조금 막막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아도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특별하거나 극적인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3대째 이어져 온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작아도 가족 같은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웠습니다. 부모님은 말보다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셨고,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공동체의 사랑 속에서, 믿음은 조금씩 제 안에 뿌리내렸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는 제게 낯선 곳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습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며 자라는 시간 속에서, 신앙은 자연스럽게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역자의 길을 결심하고 신학교에 진학한 것 역시 극적인 결단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제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준비시켜 오신 길에 가까웠습니다. 믿음의 가정과 교회학교, 믿음의 어른들을 통해 받

은 사랑을 이제는 저도 흘려보내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다음세대가 말씀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에 진학함과 동시에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배운 사역의 길

학교에서는 기독교교육을 배우고,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직접 만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아이들을 만나며 '사역은 내가 가진 능력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는 자리'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말과 서툰 준비에도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질문하며 자라가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함께 자랐습니다. 배움과 섬김이 이어진 시간 속에서 다음세대를 향한 마음은 깊어졌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환경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는 빌립보서 4장 6~7절 말씀입니다. 새로운 자리와 맡겨진 일 앞에서 때로는 염려가 앞서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평강 안에서 감당하면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합니다.

사역자로 살아가며 제가 붙들고 싶은 마음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고 성실하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영락교회 대학부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가고, 세상의 많은 소리 속에서도 복음을 기준 삼아 살아가도록 돕고 싶습니다. 사역자는 누군가의 길을 대신 걸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영락 공동체와 함께 걷는 감사의 길

새로운 교회로 옮겨와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은 감사와 긴장이 함께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의 평범한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걸음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대단한 무언가를 보여드리기보다,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배우며 맡겨진 자리에서 진실하게 섬기고 싶습니다.

제 삶에 극적인 한 장면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특별하지 않아 보이는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길러주셨고, 사람들을 통해 사랑을 배우게 하셨으며, 말씀 안에서 사역의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삶과 사역이 '제가 해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영락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벽을 넘어,
찬양으로 **하나** 되다

박예솔 전도사
사랑부

2부예배 봉헌 찬양.
사랑부·갈보리찬양대·성도들의
사랑으로 이어진 귀한 시간

베다니광장에서 시작된 '사랑 이음'

지난 4월 26일 주일, 베다니광장과 본당은 '사랑 이음'이라는 주제 아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탱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베다니광장에는 사랑부 학생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결과물들이 전시되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참여해 만든 하트 모양의 단체작품과 각자 한 글자씩 써 내려간 성경 필사본에는, 학생들의 노력과 그 곁을 묵묵히 지킨 교사와 학부모들의 헌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표현한 그 기록들은 성도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체험 활동도 풍성했습니다. 장애 인식 개선 퀴즈를 통해 편견을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를 나누었으며, 사랑부 학생들이 직접 뻥튀기와 쿠키를 나누어 주는 시간을 통해 장애의 경계를 넘어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나눔은 우리가 모두 영락 안에서 평등한 하나님의 형제자매임을 확인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사랑부 찬양, 하나로 이어진 특별한 순간

이번 장애인주일에는 사랑부가 2부예배에 봉헌 찬양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랑부 지체들과 갈보리찬양대가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사랑부 학생들은 담담하게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없는 학생들은 허밍과 멜로디로, 말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은 손짓과 몸짓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베다니광장에서 사랑부 학생들이 열심히 연습한 찬양과 율동을 선보였다.

드렸고, 예배당을 채운 것은 완벽한 기교보다 더 깊은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라는 가사가 사랑부 학생들의 입술을 통해 울려 퍼질 때, 곳곳에서 눈시울을 붉히는 성도들도 보였습니다.

갈보리찬양대원들의 안정적인 화음과 사랑부 학생들의 순수한 음성은 서로를 보완하며 하나의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각기 다른 목소리와 몸짓이 합쳐져 하나의 선율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많은 성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찬양의 막바지, 어느새 성도들도 함께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부와 찬양대, 그리고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하나로 이어졌던 그 순간은 그야말로 '사랑 이음'의 실재를 경험한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배려를 넘어, 몸의 지체로

우리는 매년 장애인주일을 지키며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체의 원리는 단순한 배려나 시혜를 넘어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몸의 지체 중 더 약하게 보이는 부분이 도리어 요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장애가 있는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소외된 객체가 아니라, 공동체의 온전함을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핵심적인 부분임을 의미합니다.

장애 인식 개선 퀴즈를 통해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막연한 궁금증들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락교회 사랑부는 장애가 있는 지체들이 신앙 안에서 자립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주 60여 명의 학생과 50여 명의 교사가 함께 예배하는 사랑부는, 받은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는 영적 통로이자 사랑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 이음' 행사는 마무리되었지만, 우리가 베다니광장과 예배당에서 경험한 연결은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장애 인식 개선은 특별한 날의 행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 교회 안팎에서 만나는 장애인 지체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그들의 속도에 맞추어 걸음을 늦춰주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물리적인 턱을 낮추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문턱을 낮추는 일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어색함이 아닌 다양함으로 받아들이고, 각자의 부족함을 서로의 강점으로 채워줄 때 우리 영락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4월의 어느 주일,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 되었던 그 기억이 일회성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당연했던 모든 것이 감사와 은혜가 되는 풍경이 영락교회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넘어 사랑으로 단단히 이어진 우리 영락교회가, 교회를 넘어 세상에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가교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남

함께하는 자원봉사의 기쁨과 넘치는 은혜

김종범 안수집사
안양·수원교구
자원봉사부 차장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10)

자원봉사부
홍보데이

우리 교회에는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도 많지만, 교회 생활 가운데 예배만 드리며 봉사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봉사에 마음이 있으신 분은 조금만 시간을 내어도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원봉사부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 봉사 영역 가운데 희망 분야를 선택하여 섬김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봉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자원봉사부를 소개합니다.

작은 섬김으로 교회를 따뜻하게

자원봉사부는 교회를 찾는 성도들께서 편안하고 은혜롭게 예배드리실 수 있도록 교통 안내, 식당 봉사, 환경 정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년 성도뿐

아니라 대학·청년 자원봉사자들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헌신하며 교회를 더욱 따뜻한 공동체로 세워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봉사를 통해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공동체 협력을 강화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안전과 예배를 돕는 다양한 봉사

자원봉사부는 성도들이 교회 안팎에서 필요한 안내와 관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교통안내 봉사는 성도들의 안전 보행과 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해 지상 주차장과 50주년기념관 주차장의 출입 안내 및 주차 관리를 담당하며, 교회 주변 횡단보도에서 보행 안전과 교통 흐름을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2년 11월 둘째 주부터 시행된 우선주차제도는 주일 가장 혼잡한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새가족, 어린이 동반 차량, 장애인, 노약자(80세 이상 성도 동승), 임산부 등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로 많은 성도의 협조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아부·유아부·유치부·유년부(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동반한 차량에 우선 주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2025년 6월 선교부에서 실시한 '청년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평가(85.2점)를 받았습니다.

환경팀은 본당과 예배 공간 및 시설물을 깨끗하게 관리하여 경건한 예배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안내데스크팀은 성도들과 외부 방문객들의 다양한 문의를 응대하며 예배와 장소 안내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분실물관리팀은 교회 내 분실물의 접수·보관·반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식당지원팀은 식당 내 질서 유지와 노약자를 위한 배식 지원 및 잔반 정리를 돕고 있습니다. 영락119팀은 주일 중 교회 내 응급 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와 환자 이송을 지원하며,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섬기고 있습니다.

1 교통봉사(교회주차장 및 주변 지역: 06:00~16:00)

2 안내데스크 봉사(봉사관 1층, 50주년기념관 1층: 08:00 ~ 15:00)

3 꿈터 청소봉사(50주년기념관 7층(토): 10:00 ~ 11:00)

자원봉사부 평가 및 송년회

▶ 자원봉사부 봉사 안내

봉사영역		주요 업무	위치	시간	
교통		주차 안내 및 횡단보도 안전관리	교회 출입문(정문,서문,남문,북문), 교회 주변 횡단보도, 지하주차장	06:00~16:00	
환경		성전 청소	본당, 벧엘, 베다니홀, 선교관, 영락꿈터(50주년기념관 7층)	화, 토	10:00~11:30
				금	15:30~16:30
				주일	08:10~09:10 (외곽 청소)
안내	안내데스크	교회 안팎 성도님들의 문의 응대	봉사관1층, 50주년기념관	08:00~16:00	
	분실물 관리	분실문 보관 및 관리	봉사관 1층		
식당		배식도우미, 잔반 정리	제1식당	08:00~15:00	
친교		자원봉사부 봉사활동 지원	자원봉사부 사무실 및 봉사 장소	08:00~16:00	
영락119		응급환자 지원 및 휠체어, 환자 이송	봉사관, 50주년기념관 앞	08:00~16:00	
청년봉사 (근로장학생)		대학부, 베드로부, 자유인예배부, 외국어예배부원 중 자원봉사 지원	교통봉사 지역 등	08:00~16:00	

식당봉사: 배식도우미 및 잔반처리(제1식당: 08:00 ~ 15:00)

자원봉사부
신청서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봉사의 기쁨

자원봉사부는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부서입니다. 자원봉사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성도들의 작은 손길이 모여 큰 사랑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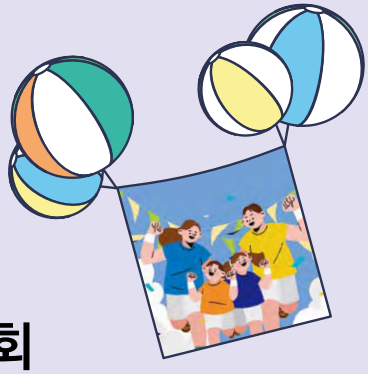
봉사의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더 많은 성도께서 봉사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봉사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봉사는 건강한 성도로 세워 갑니다. 봉사는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배우게 합니다. 자원봉사부의 섬김은 청년·장년·시니어 성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1회 약 2시간 내외로 봉사가 가능합니다. 개인 신청은 물론 가족과 단체 봉사도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큰 사랑이 됩니다. 함께 봉사하며 기쁨을 나누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상단의 참여 신청서(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거나, 자원봉사부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교회 정문 옆 자원봉사부 사무실 ☎ 02-2280-01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마서 8:28)

영락119: 응급환자 지원 및 휠체어 지원(08:00 ~ 16:00)



다음세대와 함께한
2026 영락 가족운동회

이경일 집사
강남교구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신 시간은 한정적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세대를 넘어 끊임없이 견고하게 흘러가야 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대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영락교회 가족운동회가 3세대가 함께 어우러진 가운데 풍성하고 은혜롭게 열렸습니다. 김운성 담임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기도로 시작된 가족운동회는 단순한 체육 행사를 훨씬 넘어, 믿음의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됨을 기쁘게 경험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축제였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씨를 예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글로리아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이 온 가족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나로 모은 가운데, 각 팀이 신나게 몸을 풀며 설레는 하루를 힘차게 열었습니다. 지구공 넘기기와 뜨거운 응원전, 어린 세대들의 신나는 율동과 파도천 달리기, 풍선을 타고 힘차게 달리는 경기 등 운동장은 나이를 잊은 웃음과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처럼, 믿

음은 말과 행동으로 다음세대에 전해집니다. 어른과 아이가 함께 뛰고 서로 손을 맞잡는 이 모든 순간이 그 말씀의 살아 있는 귀한 증거였습니다. 이기고 지는 결과보다 함께한다는 기쁨이 훨씬 더 컸고, 운동장 위에서 어른과 아이 모두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선 순수한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신발 던지기와 세대를 이어 달리는 계주는, 경쟁보다 사랑과 나눔이 앞서는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행사 말미에는 푸짐한 상품 추첨으로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고 웃었습니다. 이 소중한 행사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땀 흘려 수고해 주신 모든 섬김이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영락 가족운동회가 믿음의 끈으로 단단히 이어지는 아름다운 전통으로 지속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대대로 함께 찬양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더욱 굳건히 세워져 가기를 온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안남

영락시어터 6월 상영 영화

(50주년기념관 B1 소강당, 주일 오후 2시)

미션 (The Mission, 1986) 12 2시간 5분

7일

감독 : 롤랑 조페 **출연** : 로버트 드 니로, 제레미 아이언스 외

18세기 남미 오지로 간 가브리엘 신부는 폭포 절벽 위 과라니족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과 교감한다. 동생을 죽인 노예상 멘도자는 죄책감 속에 깊이 참회하며 신부의 길에 나선다. 과라니족 마을이 포르투갈령이 되며 노예화를 금지해 온 에스파냐와 교황청의 영향력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원주민을 지키려는 멘도자와 가브리엘 신부는 무력과 비폭력이라는 각자의 방식을 택한다.

장수상회 (Salut D'Amour, 2015) 12 1시간 52분

14일

감독 : 강제규 **출연** : 박근형, 윤여정, 조진웅, 한지민, 황우슬혜, 김정태 외

동네 터줏대감이자 장수마트를 오랫동안 지켜온 성칠은 까칠하기로 소문난 중년 신사다. 어느 날, 옆집에 금님이 새로 이사 오고, 성칠의 집을 자주 찾아온다. 처음에는 그녀의 방문이 귀찮게 느껴졌던 성칠은 어느새 그녀의 방문이 반갑고, 함께하는 시간도 점점 즐거워진다. 모든 게 서툰 성칠이 조금씩 금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던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의 수상한 움직임에 성칠은 우연히 숨겨진 비밀을 발견한다.

신의악단 (Choir of God, 2025) 15 1시간 50분

북한선교부 주관 영화 상영
21일 오후 3시

감독 : 김형협 **출연** : 박시후, 정진운, 태항호 외

북한 보위부 장교 교순은 NGO로부터 2억 달러를 지원받기 위해 가짜 찬양단을 조직한다. 단순히 외화를 벌기 위한 행동이지만, 악단 활동을 이어가면서 교순은 점차 변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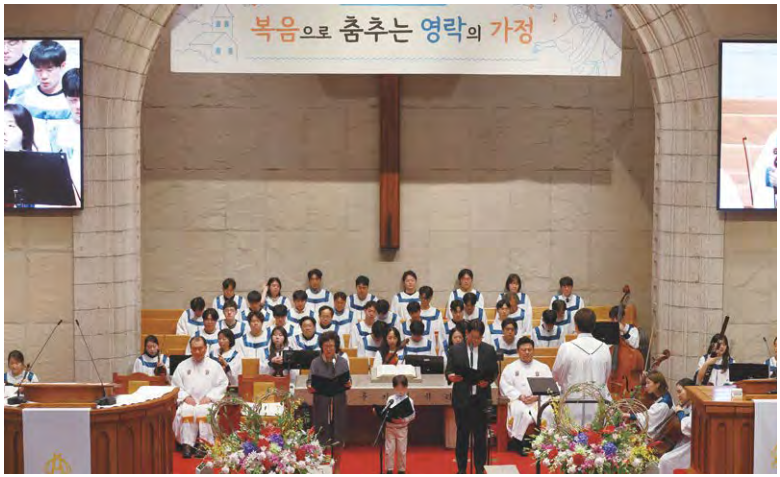
담보 (Pawn, 2020) 12 1시간 53분

28일

감독 : 강대규 **출연** : 성동일, 하지원, 김희원, 박소이 외

1993년 인천, 거칠지만 속정 깊은 사채업자 두석과 종배는 불법 체류자인 명자의 빚을 받으러 갔다가 그녀의 아홉 살 딸 승이를 '담보'로 맡게 된다. 명자가 강제 출국당하자 두 사람은 승이를 돌보게 되고, 시간이 지나며 세 사람은 피로 맺어진 관계 이상으로 서로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된다.

가족주일 맞아 전 세대가 함께 드린 가족예배



01

지난 5월 10일 2~4부예배는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주일 특별예배로 드려졌다. 예배 중 기도와 봉헌송은 3세대가 함께 진행하여 3대 이상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영락의 가정이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성경봉독 순서에서는 교회학교의 귀엽기만 한 어린이들이 참여해 가족예배의 의미를 더하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축복의 박수를 보냈다. 김운성 담임목사는 '아들, 어머니, 그 너머'(잠언 31:1~2)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잘못했을 때 엄히 징계하셨듯이, 부모는 자녀가 옳은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고 때로 훈계로써 양육하며 궁극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자."고 설교했다. 한편, 교육부는 베다니광장에서 가족들에게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 간식을 나눠 가족과 함께하는 기쁨을 더하며 가족들을 축복했다.

취재 **정진이** 신입기자

02

교육주일 특별예배, 근속 교사 47명 시상하며 격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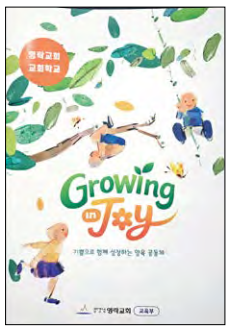
교육부(부장 조용철 장로)는 5월 17일 주일 찬양예배 때 많은 학생과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교회학교 교육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주일 특별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김종훈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으며, 교육부장 조용철 장로의 기도와 교육부 연합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방덕종 목사가 '보이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사사기 14: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초등부 김예승 어린이가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를 낭독했고, 10·20·30·40년간 교회학교 교사로 순종하여 섬긴 근속 교사 47명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교사들은 특송으로 은혜를 더했다. 김운성 담임목사는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를 전하며, 다음세대가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의 교육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권면했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영아부부터 대학부까지 영락의 교회학교가 각 발달 단계에 맞는 신앙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함께 자라가도록, '기쁨으로 함께 성장하는 양육 공동체, Growing in Joy'라는 주제의 브로슈어를 펴내고 이날 베다니광장에서 교육부 교육박람회를 열었다.

취재 **김경옥** 기자

근속 교사 명단

40년	이혜숙 노순옥
30년	조용철 김희수 이환선 전상훈 김혜인
20년	전유경 이석인 최은주 박현정 이선영 이청일 황정임 문명신 조수현 조규현 김재웅 조진영
10년	김영미 김영임 문호선 송현호 정정심 김차진 신순임 현승미 김옥희 김정은 염선영 박신권 이지순 최혜원 김경림 김다예 김예찬 김정연 이선주 김상배 박승규 이화은 이현경 한정수 김완영 윤석우 윤은혜 정현애 김주희 김정중



평생대학, 단양팔경 둘러보며 자연 속에서 봄 소풍 즐겨

03

평생대학에서는 4월 23일(1차), 4월 30일(2차) 두 차례에 걸쳐 단양 충주호 일대를 다녀왔다. 이번 소풍에는 평생대학 학생, 교·총무팀, 교사, 봉사자 청년회 스태프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평생대 학생들과 교사는 오전 8시 30분에 교회 본당에 모여 이지철 목사의 인도로 경건회를 드린 후, 반별 차량에 탑승해 휴게소를 거쳐 약 3시간 후 단양에 도착하여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어르신들은 화창한 날씨 속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단양팔경의 절경을 감상했고, 이어 장회나루 선착장으로 이동해 청풍호반 유람선 투어를 즐기며 편안하게 친목을 다지며 즐거워했다. 이날 특별히 기쁨과 감사로 봉사에 나선 청년팀의 섬김에 힘입어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로운 소풍을 즐겼다.

취재 김경옥 기자

어린이주일에 31명 유아세례식 거행

04

어린이주일인 지난 5월 3일 찬양예배에서는 31명의 유아세례식과 성찬식이 진행되었다. 유아세례식의 집례를 맡은 김운성 담임목사가 유아 31명의 이름을 호명하면 부모들이 기립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했다. 서약 후, 세례위원들이 입장하여 세례를 베풀었다. 김운성 목사는 부모들에게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어진 축하영상과 함께 성도들은 축복의 박수로 수세자들을 축하했다. 찬양예배에서는 강승훈 목사가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요한복음 2:1~5)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이후 성찬식이 진행되었다.

취재 김경옥 기자

사회봉사부 찬양팀, 은퇴여교역자 안식관 찾아 ‘후원자 초청 찬양축제’에 참여

05

우리 교회에서 다양한 예능으로 재능 봉사 활동을 하는 사회봉사부의 올드보이 하모니카팀, 예수향기 워십팀, 옛 백병원 봉사팀, 은퇴권사회가 지난 4월 30일(목) 양평군 용문에 있는 여교역자 안식관에서 (사)전국여교역자연합회 복지재단이 주관한 ‘제48회 안식관 후원 찬양축제’에 참여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난 48여 년을 이어오며 후원자들을 통해 안식관을 운영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배로 진행되었다. 특순으로 올드보이 하모니카팀의 찬양이 있은 뒤 복지재단 이사장 임영숙 목사가 설교했다. 2부 찬양축제에서는 중창단, 포크댄스, 하모니카, 부채춤, 몸찬양, 우쿨렐레 등 후원자 팀의 다양한 공연이 이어지며 안식관의 여교역자들을 위로했다. 이번 축제는 우리 영락교회를 비롯해 광석교회, 무학교회, 문호교회, 자양교회 등이 참석해 예배와 찬양으로 함께했으며, 향후 후원자 모임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는 뜻깊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 안식관은 평생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사역해 온 은퇴여교역자들의 안식처로, 1981년 설립되었다.

취재 **김경옥** 기자

2026년 권사수련회 건강한 신앙으로 가꾸는 행복한 후반전

06

“권사는 예수님을 믿기 쉽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지난 5월 12일(화) 드림홀에서는 2026년 권사수련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열린 이번 권사수련회는 1부 여는 예배, 2부 점심 교제 및 교구별 친교, 3부 워크숍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체 18교구 약 300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부 예배는 오정선 권사의 인도로 진행되었는데, 강사로 나선 홍인종 목사(장신대 상담학 은퇴 교수)가 ‘건강한 신앙으로 가꾸는 행복한 후반전’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서 “권사는 예수님을 믿기 쉽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전했다. 권사수련회는 난타팀(G. CROSS, 단장 윤일영 권사)의 감동적인 무대로 막을 내렸다. 이어 식사와 교구별 친교 후 진행된 3부에서는 탁현수 목사(권사회 담당)의 인도로 워크숍을 갖고, 남은 삶이 믿음의 선물이 되기를 다짐하며 은혜로운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권사수련회는 1977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이어오고 있다.

취재 **인 미** 기자

선교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극동교회 준공예배 및 김동익 선교사 사역지 방문

선교부(부장 서상현 장로)는 지난 5월 13~18일(5박6일)까지 블라디보스톡에서 사역하는 김동익 파송선교사 사역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 목적은 한국문화의 날 행사 견학을 통한 관계자 격려와 3년 후로 예정된 선교사 후임 인선과 향후 사역 방향 및 코로나로 인해 미뤄졌던 극동교회 준공예배를 드리고자 함이다. 이번 방문은 선교부의 김진호 목사, 서상현 장로, 신동엽 해외선교부 차장, 3여전도회 해외선교부 임원 5명과 함께 극동교회 건립을 위해 건축비를 쾌척한 이순옥 권사가 동행했다. 러시아의 부흥과 선교의 최전선 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복된 사역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극동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이 점점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제공 **선교부**

07

2026 한국 교회 학부모기도회, 우리 교회에서 열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08

‘한국 교회 학부모기도회’가 지난 5월 20일(수) 우리 교회 본당에서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주최로 기독 학부모 및 성도, 기독교학교 이사장, 학교장, 교목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사학미션 이사장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는 “이 땅의 교육과 기독교학교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해야 한다. 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는 일은 곧 선교”라고 강조했다. 이날 사학미션의 함승수 교수(명지대)는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 대한 한국교회 유권자 인식 조사를 발표하며, 유권자들의 저조한 인식과 관심을 지적하고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강력히 호소했다. 또한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기독교적 교육 가치를 지지하는 후보자의 교육 정책과 공약을 세밀히 살펴 분별하는 안목으로 선거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다음세대의 온전한 성장과 기독 학부모의 소명 회복, 기독교학교의 회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을 위하여 합심 기도하며, 기독교교육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을 결단했다.

취재 **김경옥** 기자

김운성 담임목사, 장신대 개교기념행사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 수여

09

장로회신학대학교가 5월 12일(화) 개교 125주년을 맞아 한경직기념예배당에서 '제125주년 개교기념 감사예배 및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장신대는 3부 학위수여식에서 박보경 대학원장의 사회로 김운성 목사의 약력과 추천서를 낭독한 뒤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박경수 장신대 총장이 학위패를 증정했다. 축사를 맡은 조택현 목사(광주서남교회)는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몇 편의 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김 목사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교회를 충직하게 섬겨 온 삶 전체가 살아 있는 논문임을 입증한다."라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김 목사는 답사에서 "오늘이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의 추도일"이라고 언급하며,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린다. 또한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 아내와 네 자녀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묵묵히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다. 학위수여식에는 은퇴장로회를 비롯해 각 부서와 단체에서 대거 참석해 김 목사의 학위 수여를 축하했다.

취재 **김경옥** 기자

10

영락미술인선교회 제20회 정기전 열어

영락미술인선교회(회장 조진숙 이하 영미협) 전시회가 5월 13일(수)~18일(월)까지 '은혜의 뜰에 서다'라는 주제로 인사동 갤러리아이즈에서 개최되었다. 13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 개막식에는 50여 명의 회원과 외부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부 개막예배에서는 박용준 목사가 '은혜의 낙원에 서다'(창세기 3:18~2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2부에서는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가 '예술과 영성'을 주제로, 기독미술에 관하여 강연했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영미협은 시각예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려는 선교적 사명을 가진 미술인들의 모임이다. 회원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작품에 담아, 교회 내외부에서 활발히 전시 활동 및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회화, 서예, 조소, 도예, 디자인 등 40여 점을 전시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표현하며 감동과 은혜를 선사했다.

취재 **김경옥** 기자

역사자료실, 디지털 자료 변환 계약 체결

11

역사자료실(위원장 이일호 장로)은 4월 22일(수) 조두형 목사의 예배 인도 후, 시청각 자료 10,398점의 디지털 변환 사업을 위한 계약 및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입찰을 통해 선정된 ㈜제머나이소프트와 기록문화보관소㈜가 함께 참여해 추진되었다. 디지털 변환 사업은 노후화된 시청각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영상과 음향 자료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영구 보존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자료 정리와 메타데이터 구축을 통해 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며, 변환된 기록물은 향후 교회의 역사와 신앙을 알리는 다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역사자료실은 앞으로도 영락교회의 소중한 기록 유산을 지속적으로 수집·보존하며 다음세대에 전하는 사역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공 역사자료실

애독자 참여코너

6월호 『만남』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교인이 함께하는 『만남』 제작을 위해 성도님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아래 내용을 적어 제출(QR코드 또는 이메일 youngnak-hb@daum.net) 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도 드립니다.

(다음 호에 당첨자 발표 예정 / 당첨 응모나 기사 추천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처를 남겨 주세요.)

1. 이름: _____ 연락처: _____

2. 소속(교구/봉사부서/교육부/기타): _____

3. 이번 달 『만남』 내용 중 가장 좋았던 기사 제목은 무엇인가요? 좋았던 이유나 소감도 간단히 적어 주세요.

_____

4. 평소 알고 싶거나 『만남』에 추가로 소개되길 원하는 내용을 적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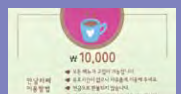
_____

5. 주변에서 『만남』 기사로 추천하고 싶은 활동이나 교우들에 관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재택 시 추후 취재를 통해 기사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_____

지난 호 당첨을 축하합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김지예(동대문·중랑교구)
이정휘(청년선교회)
이훈희(노원교구)



봉사관 503호
홍보출판부로 오셔서
선물을 수령해 가세요.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
Christ and the Woman of Samaria
1604~1605

안니발레 카라치
Annibale Carracci
1560~1609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시다

이 작품은 이탈리아 바로크 미술의 거장 카라치가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우물가의 대화 장면을 고전적인 우아함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던 중, 수가성 근처 야곱의 우물가에서 정오에 홀로 물을 길으러 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화면 중심에는 머리 위로 둥근 후광을 띤 메시아 예수님이 인자한 눈빛으로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면의 변화를 겪기 시작하는 찰나의 표정으로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갈급하여 찾는 삶의 우물가에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심을 믿으며,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이은혜 권사 _ 성동·광진교구

2026년 6월호 통권 626호

발행 2026. 6. 1.
발행인 김운성 / **지도목사** 박지운 / **편집인** 김주헌 / **편집장** 김성문
편집위원 이신일 김정훈 김기선 박선이
기자 김경옥 / 박진현 이재향 이현지 인 미 최윤미 / 김천경 승윤영 이나영
사진기자 박홍기 원종석 유승헌
교열 김응기 이광미 조한아 김현중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 **디자인** design D.I

월간 「만남」 e-Book

표지설명

6월, 무궁화는 호국의 희생과 눈물을 품고도 다시 피어나는 믿음의 꽃입니다. 오늘의 자유가 이름 없는 헌신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하며, 분단의 아픔 너머 이 민족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실 주님의 평화와 통일을 소망하게 합니다.

새아기·새가정…
은혜의 여정 함께합니다

4월

※ 교회 홈페이지 게재 기준

1

2

3

새가정

1 하동균, 이서정 가정

군입대

2 김동현
3 이고든

새아기

4 김선우(김세훈, 이사라 가정)
5 최이현(최민수, 박수민 가정)
6 박소율(박찬영, 유효정 가정)
7 전하윤(전성대, 김주영 가정)
8 김로아(김호수, 정민지 가정)
9 전우빈(전재량, 김희원 가정)

4

5

6

7

8

9

▶ 새아기, 새가정, 군입대로 주일 4부예배에서 축복 받기를 원하는 성도께서는 각 교구 전도사에게 신청해주세요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 Christ and the Woman of Samaria

안니발레 카라치(Annibale Carracci)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14)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4:15)

▶ 작품 내용은 60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